

양태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siquiera*의 양보성과 최소성의 의미

곽재용

한국외국어대학교

곽재용(2017), 「양태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siquiera*의 양보성과 최소성의 의미」,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8(1), 1-29.

초록 전통적으로 스페인어의 부사 *siquiera*는 조건 접속사 *si*와 동사 *querer*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형의 합성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cf. RAE 2014) 주로 부정의 의미를 갖는 요소인 *ni*와 함께 부정극어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ni*의 동반이 이루어지지 않고 긍정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법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부사 *siquiera*는 양태성을 갖는 비부정적 맥락에서 초점의 부사로 작용하면서 최소성의 의미를 드러내는 양태성 극어로 작용하는 현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용법이 가능한 이유로 *siquiera*가 어원적으로 전칭적 양보성을 가지는 점(cf. Haspelmath and König 1998)과 더불어 *siquiera*의 어휘 합성과정에 참여하는 *quiera*가 양태성과 관련된 형태론적 굴절정보를 갖는다는 사실(cf. Bosque 1999; 2002; Fabregas 2014)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핵심어 초점의 부사, 양태성극어, 전칭양화, 양보성, 최소성의 의미

I. 들어가는 말

스페인 왕립 학술원(Real Academia Española: RAE)(2014)에 따르면 스페인어의 어휘 *siquiera*는 *aunque*의 의미를 갖는 양보의 접속사(concessive conjunction), *ya*와 동일한 용법의 분배접속사(distributive conjunction), *al menos*의 의미를 갖는 부사, 그리고 부정의 맥락에서 *tan solo*의 의미를 갖는 부사 등 총 네 가지의 용법을 갖는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네 가지의 용법들 중 부정 맥락(negative context)에서 사용되는 *siquiera*에 대한 연구는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의 연구와 함께 그 의미-화용적 그리고 통사적 특성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루어졌지만, 긍정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siquiera*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siquiera*가 RAE(2014)의 정의처럼 비부정맥락(non negative context)에서 *al menos*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양태성 극어(modal polarity item)의 특성을 가지며 양보성(concessiveness)을 갖는 초점부사(focus adverb)로 기능함을 살펴보고 *siquiera*가 갖는 전칭양화(universal quantification)와 관련된 특성은 그 어원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척도 초점의 부사로 기능하는 *siquiera*가 갖는 양보성과 양화성

1. *siquiera*의 기본적 특성

RAE(2014)는 스페인어의 *siquiera*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siquiera,

De si y quiera, 3.ª pers. de sing. del pres. de subj. de querer.

1. conj. conc. *aunque*, *Hazme este favor, siquiera sea el último.*

2. conj. distrib. *ya*, *Siquiera venga, siquiera no venga.*

3. adv. *al menos*(|| *aunque no sea otra cosa*), *Deme usted media paga siquiera.*

4. adv. *Tan solo*. U. en contextos negativos o irreales. *No tengo un euro siquiera.*

siquiera는, RAE(2014)의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형태적으로 조건 (conditional)의 접속사 *si*와 동사 *querer*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형의 합성어이다. RAE가 제공하는 위의 내용들 중 3번에 해당하는 내용, 즉 부정의 맥락과 무관한 상황에서 *siquiera*가 최상급의 양화부사인 *al menos*와 동일하게 최소성의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작용하는 환경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lvira(2007; 2009)는 *siquiera*가 중세에 ‘*aun, incluso*’와 같이 부사로 사용되거나 ‘*o, o bien*’과 같이 접속사로도 사용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cf. Corominas and Pascual 1984, 719).

(1) a. Qui buena dueña escarneçe e la dexa después / atal le contesca o **si quier** peor (*Cid*, 3707)

b. De los signos del sol **sy quier** del fundamento (=firmamento) nos me podría celar cuanto vale un acento (*Alexandre*, 44)

Elvira(2007, 139; 2009, 226)

Palomo(1936)는 (1a), (1b)에서 관찰되는 두 형태인 *si quier*와 *sy quier*의 경우 *si se quiere > se quier(e) > siquier(e) > siquier sea > quier sea > sea... sea...*와 같은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lvira(2007, 140)는 Bartol Hernández(1986)의 주장처럼 기본적으로 조건문의 유형인 *si quier(e)*에서 출발하여 *sysquier(e)*, *se quier(e)*, *siquiera*¹⁾와 같은 변이형들이 *siquier(e)*보다 훨씬 덜 사용되었다고 보아 *siquier(e)*가 더 자주 발견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Elvira는 (1b)에서 접속사로 기능하는 경우와 (1a)와 같이 초점의 부사로 작용하는 경우 모두 조건의 의미인 접속사 *si*와 동사 *querer*와의 합성의 결과로 본다. Palomo(1936)의 언급처럼, 조건의 의미가 퇴색되어 이접의 접속사(disjunctive conjunction)로 사용되는 용법으로 오늘날 위 RAE가 언급

1) 형태가 오늘날의 *siquiera*와 같지만 Elvira는 이 형태는 중세시대에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형태로 필사자가 범한 일종의 오류로 설명한다.

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는 스페인어의 *siquiera*는 실제로 오늘날에서도 다음과 같이 양보성을 갖는다.

- (4) a. Si el futbol atendiera siquiera un poco a la lógica, el Barcelona arrollaría al Getafe.
 ‘If soccer followed logic even a bit, the Barcelona would crush the Getafe’.
- b. Gabriel había cruzado la calle [antes/*(después) de] siquiera pensar en lo que estaba haciendo.
 ‘G. had crossed the street before even thinking about what he was doing’.
- c. El clima del viernes era [demasiado/*bastante] malo para siquiera intentar un lanzamiento.
 ‘The Friday weather was too bad to even try a launching’.
- d. ¿Has leído siquiera el título del post?
 ‘Have you even read the post title?’

Alonso-Ovalle(2009, 7-8)

Alonso-Ovalle(2009)는 (4)의 예문들에서 사용된 *siquiera*는 모두 영어의 양보사인 *even*의 해석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4a)는 조건절에서 접속법이 사용되는 환경이고, (4b)는 전치사구 *antes de*와 함께 비실현의 맥락이며, (4c)는 과도함(*excessiveness*)의 의미와 관련된 정도의 양화사(*degree quantifier*)(cf. Bosque 2002, 264)의 출현환경이다. 그리고 (4d)는 의문문의 환경이므로 (4)의 네 예문들 모두 의미적으로 양태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양태적 맥락에서 *siquiera*가 영어의 *at least* 즉, 스페인어의 *al menos*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Alonso-Ovalle(2009)가 설명하는 부분이다.²⁾

2) Alonso-Ovalle(2016)이 제시하는 (4)의 네 예문 중 (4a)와 (4d)의 경우 *at least*의 해석이 전혀 없는가에 대한 직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있다. 이후 살펴보게 될 (18b)의 의문문과 접속법이 사용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조건절의 경우는 Alonso-Ovalle는 *siquiera*가 *at least*의 해석을 갖는다고 한다.

‘The content of organic C should be at least a 0.6% higher than the content of the forementioned horizon’.

- (9) Los conservadores han pedido (...) que se modifique **siquiera** puntualmente el Título VIII ,

‘The Conservatives have asked that the Eighth Title be modified at least minimally’.

Alonso-Ovalle(2009, 8-9)

Alonso-Ovalle(2009, 9)는 *siquiera*가 *even*의 의미를 갖는 (4)의 예문들과 *at least*의 의미를 갖는 (5)-(9)의 예문들과의 비교에서 관찰되는 대조적 특성을 토대로, (4)의 예문들이 *even*의 해석을 갖는 이유를 부정적 해석의 편향 (*negative bias*)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4)의 경우 비외현적 부정(*implicit negation*)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다음의 예문 (10a)와 (10b)의 예문을 비교해 보면 그가 *siquiera*에 대한 출현환경을 판단하는 기준을 짐작할 수 있다.

- (10) a. *Pedro nadó *siquiera* una vez.
 b. Pedro no nadó *siquiera* una vez.
 c. ¿Nadó *siquiera* una vez?
 ‘Did he swim *even* once?’

Alonso-Ovalle(2009, 14, 16)

(10a)에서는 부정어 *no*가 없이는 *siquiera*가 인허가 될 수 없으며, 부정어 *no*의 출현이 (10b)가 올바른 문장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초로 Alonso-Ovalle는 *siquiera*가 부정극어의 특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Alonso-Ovalle가 (10c)의 의문문의 경우도 질문을 하는 화자가 청자에게 부정적 대답(*negative answer*)을 요구한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4)의 예문들 -특히 (4d)- 을 모두 부정의 맥락과 관련되는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지의 사실은 (10b)의 *siquiera*가 출현하는 환경은 *no*에 의해 부정어 일치의 기제로 인허되는 현상은 맞지만 *at least*의 의미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5)-(9)의 예문들은 외현적으로 *no*나 그에 상응하는 부정어의 출현이 없는

환경에서 *at least*의 의미를 갖는 *siquiera*의 용법들이므로 통사적으로 부정의 요소가 문장에 출현하는 구조도 아니다. 본 연구는 (10a)는 양태적 환경이 없기 때문에 *at least*의 해석을 갖지 못하는 경우이며 (10b)는 부정의 맥락에서 *siquiera*가 *at least*의 해석이 아닌 *even*의 해석을 갖기 때문에 비외현적 부정이 문장에 내포되어 있다는 가정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오히려 비부정적 맥락의 (10c)가 문법적인 이유는 의문문이라는 양태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부정적 맥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AE(2014)도 언급하듯이, 외현적으로 부정의 요소가 출현하는 부정문이 아닌 양태성을 갖는 긍정의 맥락에서 *siquiera*는 *al menos* 즉, *at least*의 의미적 기능을 갖는다. (10a)에서 ‘*Pedro nadó una vez*’는 Pedro가 수영을 한 번 했다는 단언의 문장이므로 양태적 맥락이 없으며 따라서 양태적 맥락을 요구하는 *siquiera*가 사용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장이다. RAE(2014)가 사전적 정의로 기술하는 것처럼 *siquiera*는 최상급의 부사구인 *al menos*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Pedro nadó al menos una vez*’는 가능한 문장임을 생각해 볼 때, (10a)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al menos*가 양태성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최상급의 부사구이지만, *siquiera*는 어원적으로 동사 *querer*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형과의 합성어이므로 이 합성어에 내포된 접속법과 관련된 의미적 자질과 관련된 양보성이 양태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al menos*는 *siquiera*와 동일한 양태적 맥락에서 동일한 의미적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전자는 양태적 맥락을 요구하는 부사구가 아니지만 후자는 양태적 맥락을 요구하는 요소이므로 이 두 표현의 차이는 양태적 맥락의 요구 여부와 관련된다고 본 연구는 주장한다.

2. *siquiera*가 양태적 맥락에서 갖는 양보성과 양화성

Alonso-Ovalle(2016)는 스페인어의 *siquiera*는 다양한 비진언적 맥락(non-veridical context)에서 인허되는 요소로 초점의 해석에 민감한 극어로 규정되는 양보성 척도사(Concessive Scalar Particle: CSP)(cf. Crnić 2011a, b)로 제

안한다. Alonso-Ovalle(2016)는 *siquiera*가 하향 함의(downward entailing)(cf. Ladsaw 1979)에서 보여주는 강화 효과(strengthening effect)와 의문문에서의 부정적 해석 편향 현상(negative bias in question)(cf. Alonso-Ovalle 2009)과 더불어 본 연구의 주제인 양태적 맥락에서 최소성의 의미를 갖는 *at least*로의 해석이 가능한 용법에 대해 설명한다.

(11) Tienes que ir a la piscina *siquiera* [una]_F vez.

Alonso-Ovalle(2016, 187)

Alonso-Ovalle는 (11)에서 CSP로 작용하는 *siquiera*가 후행하는 *una*의 양화성을 수식하고 우설법 동사구(periphrastic verbal phrase)인 *tener que*는 필요성을 갖는 양태동사(necessity modal)(Büring 2008; Penka 2015; Schwarz 2016; Kennedy 2015)가 양태적 맥락에서 양보성의 의미를 드러낸다(cf. Kadmon and Landman 1993; Nakanishi and Rullmann 2009)고 기술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12) [whether] = $\lambda f \langle \langle st, st \rangle, st \rangle, \{f(\lambda p. p), f([\text{not}])\}$

(13) ¿Leyó *siquiera* el [primer]_F capítulo?

(14) a. LF₁: whether $\lambda_1 t_1 \langle st, st \rangle$ EVEN_{C2} AT LEAST_{C1} [he read the [first]_F chapter]

b. {[EVEN_{C2} AT LEAST_{C1} [he read the [first]_F chapter]]_C,
[not EVEN_{C2} AT LEAST_{C1} [he read the [first]_F chapter]]_C}

(15) LF₂: whether λ_1 EVEN_{C2} $t_1 \langle st, st \rangle$ AT LEAST_{C1} [he read the [first]_F chapter]

Alonso-Ovalle(2016, 189)

Alonso-Ovalle(2016)는 (13)과 같은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12)의 *whether*와 같은 비음성실현 운용자(silent operator)를 갖는다고 본다. 그런데 (13)의 문장을 (14a)와 같이 가정하면 *whether*의 흔적이 EVEN보다 작용역이 넓게 되므로 (14b)와 같이 두 가지 해석을 갖게 되어 해석의 모호함이 발생된다고

(16)-(17)과 같은 설명은 *siquiera*는 초점의 부사로 기능하면서 초점이 부여된 [primer]_F를 통해 맥락상 여러 대안들 중 하나로 *el primer capítulo*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4d)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16a)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대안들의 존재가 가능한 열린 맥락(open context)이라고 보아야 한다. *siquiera*가 (13)과 (4d)에서 의문문이라는 양태적 맥락하에서 출현하므로 *al menos*와 동일하게 최상급의 부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LF(Logical Form)에서, Sánchez López(1999, 1108)가 기술하는 것처럼, 해석상 마치 문장 부사처럼 작용하게 되어 최저 등급의 척도함의(scalar implicature)를 갖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은 *siquiera*가 갖는 CSP의 정의와도 부합하므로, (13)과 마찬가지로 (4d) 역시 *siquiera*는 어원적으로 *even*과 같이 양보성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며 결코 어휘적으로 명세화된 최소성의 의미와 관련된 양화성은 없다. 따라서 (4d), (10c), (13)에서 *siquiera*의 *even*의 해석은 어원적으로 양보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8) a. Todos los estudiantes que hablaron *siquiera* una vez llevaban pantalones vaqueros.
b. ¿Dormiste *siquiera* un poco?

(18a)와 (18b)는 Alonso-Ovalle(2016)도 언급하듯이 *siquiera*가 *al menos*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물론 (18a)의 *una vez*와 (18b)의 *un poco*같은 양화사에 인접하여 선행하는 이유로 보다 더 양화사와 관련된 편향적 해석을 할 수 있지만, (13)에서도 보았듯이 의문문에서 *siquiera*는 영어의 *even*과 *at least*의 해석과 관련하여 구분이 모호하다.

만약 우리가 작용역 이론(Scope theory)(Horn 1971; Karttunen and Peters 1979; Wilkinson 1996; Lahiri 1998; Guerzoni 2003; Nakanishi 2006)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18a)의 문장은 *siquiera*가 긍정극어(Positive Polarity Item)처럼 하향함의의 운용자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해석을 위

해서는 (18a)에서 *siquiera*가 내포절 밖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맞이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우리가 모호성 이론(Ambiguity Theory)(Rooth 1985; Rullmann 1997; Herburger 2000; Schwarz 2005; Giannakidou 2007)을 따른다면, 긍정의 맥락에 출현하는 *siquiera*와 부정의 맥락에 출현하는 *siquiera*를 서로 다른 어휘항목으로 구분해야 하는 문제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을 하더라도 (18a)에서는 *siquiera*가 내포절에 출현하기 때문에 LF 층위의 해석에서 주절의 전칭양화사인 *todos*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 내야 하는 추가적 설명 장치가 필요하겠지만 Alonso-Ovalle의 분석으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다음 III장에서 언급하겠지만 (18a)에서는 *siquiera*가 자신을 성분통어하는 전칭양화사 *todos*에 의해 인허되는 요소라고 본다. 이러한 인허기제와 관련된 *siquiera*의 특성은 (18b)의 경우 *siquiera*가 갖는 CSP의 특성 즉 양보성의 자질이 의문문이라는 양태성에 의해 인허된다는 점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9) a. ¿Has leído *siquiera* un capítulo?
 b. ¿Has leído al menos un capítulo?

(19a)의 *siquiera*는 *even*과 *at least*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문장에서 직접보어인 명사구 *un capítulo*의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가 기수 양화사(*cardinal numeral quantifier*)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siquiera*는 (19b)처럼 *al menos*가 기수 양화사를 직접 수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한 해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처럼 (19b)의 *al menos*는 양태성과 무관하게 최상급 양화사로 작용하지만, (19a)의 *siquiera*는 의문문이라는 양태적 환경 하에서 양보성을 우선적으로 가지며 이에 따른 양태적 맥락에서 *siquiera*가 갖는 척도함의의 특성으로 인해 양화성의 해석도 얻어지는 문장이다. 따라서 (19a)와 (19b)는 해석의 측면에서 상관관계는 있지만 양보성과 척도관련 양화성 간의 우선순위에서 야기되는 해석의 문제는 그

인과관계가 다르게 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siquiera*는, Alonso-Ovalle(2009; 2016)의 주장과 달리, 의문문에서는 양보성과 관련된 *even*과 양화성과 관련된 *at least*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는다고 본다. *siquiera*가 갖는 양보성과 양화성은 각각 *aun*과 *al menos*와 관련된다는 사실은 앞 절에서 스페인어의 언어변천과정에서 *siquiera*가 양보성과 관련된 표현에서 출발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화성은 어원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양보적 맥락이라는 양태성에서 비롯된 해석으로부터 얻어지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III. *siquiera*의 인허조건과 관련된 양태성

1. 전칭양화적 성격의 *siquiera*

Bosque(1999, 48)는 양태적 맥락을 이끄는 요소로 내포술어(*intensional predicate*)에 해당하는 동사들로 *buscar*,⁴⁾ *aceptar*, *pedir*, *esperar*, *querer*, *intentar*, *planear*, *perseguir*, *merecer* 등을 제시한다.

- (20) a. *Acepto cualquier sugerencia.*
 b. **Tengo en la mesa cualquier sugerencia,*
- (21) a. *Su labor merece siquiera un pequeño reconocimiento.*
 b. **Su labor muestra siquiera cualidades muy positivas.*
- (22) a. *Me pudiste llamar siquiera una vez.*
 b. **Me llamaste siquiera una vez.*

양태적 맥락을 이끄는 술어가 사용된 (20a)와 (21a)는 *siquiera* 뿐만 아니라 *cualquiera*도 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2a)는, (22b)의

4) Bosque는 다음 예문처럼 동사 *buscar*가 부정관사를 취하는 명사구(*indefinite NP*)와 그에 후행하는 종속절의 접속법 출현환경에 착안하여 양태 유발자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 (i) a. *Busco un libro que me sirva.*
 b. **Tengo un libro que me sirva.*

문장과 비교해 볼 때, 가능성의 양태 조동사(possibility modal auxiliary)인 *poder*의 출현이 문장을 용인 가능하도록 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Bosque(1999)는 내포술어들 뿐만 아니라 조동사 *poder*도 양태적 맥락의 유발자(trigger)로 기능한다고 보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양태적 맥락의 유발자로 제시한다.

(23) 비실현 양태성 유발자(Irrealis modal trigger)

1) 미래시제

- a. *Lo hice siquiera una vez.
- b. Lo haré siquiera una vez.

2) 가정미래, 조건의 접속사

- a. *La viste siquiera una vez.
- b. Si la vieras siquiera una vez.
- c. *Contigo me fui a cualquier lugar recóndito.
- d. Contigo me iría a cualquier lugar recóndito.

3) 명령법(Imperatives)

- a. Dame siquiera una oportunidad,

4) 수사의문문(Rhetorical interrogation)

- a. *Te llamó siquiera una vez.
- b. ¿Te llamó siquiera una vez?

(24) 본유적으로 어휘자질과 관련된 술어

1) 내포술어[cf. (20)-(21) 참조]

2) 어휘적으로 부정적 의미의 술어(negar, rechazar, prohibir, evitar, dudar, reticente)

- a. Dudo que esa persona exista <siquiera>.

(25) 총칭적 구조: *cualquiera*는 가능하지만 *siquiera*는 불가

- a. Este producto es sumergible en cualquier líquido.
- b. *Este producto está sumergido en cualquier líquido.
- c. *Juan sabe siquiera escribir a máquina.

Bosque는, ‘Busco un libro que me sirva’와 같은 문장에서 접속법을 인허하는 양태성 유발자로 동사 *buscar*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23)-(25)에서 출현하는 *siquiera*와 같은 양태성 극어(Modal Polarity Item: MPI)는 양태성 유

발자(modal trigger) 또는 양태성 운운자(modal operator)가 통사적으로 그들의 양태성 자질을 점검하는 것으로 분석한다(cf. Jackendoff 1971; Progovac 1994; Kadmon and Landman 1993; Chierchia 1995; Krifka et al. 1995). Bosque(1999)의 이러한 분석은 NPI가 부정의 맥락에서 인허되는 기제처럼 *siquiera*를 양태적 맥락에서 인허되는 요소인 MPI로 제안하고, MPI의 인허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자질을 갖는 요소들을 (23)-(25)를 통해 제시한다.

Bosque는 *siquiera*와 *al menos*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De hecho, la diferencia fundamental entre *siquiera* y *al menos* estriba el que el primer adverbio solo es apropiado en un entorno intensional, como un imperativo, una pregunta, una condicional, como veremos en la sección siguiente, o el mismo verbo *poder*. El adverbio *al menos* puede aparecer dentro y fuera de estos contextos. Parece, pues, que *siquiera* es un elemento polarizado en el mismo sentido en que lo son algunos términos de polaridad negativa.

위와 같은 Bosque의 언급은 결국 *siquiera*는 양태성 맥락에서만 등장하는 부사이므로 양태극성을 갖지만 *al menos*는 양태성 맥락과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가 Alonso-Ovalle의 연구가 간과한 양보성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어원적으로 *siquiera*는 양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장이 함의하는 여러 가능한 대안들 중 그 선택된 대안은 그 중 최저 등급의 척도가 부여되므로 *siquiera*가 척도양보초점사(Scalar Concessive Focus Particle: SCFP)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al menos*와 같은 양화적 의미는 이러한 SCFP의 기능으로 인해 얻어지는 부차적인 것으로 *siquiera*의 본유적인 어휘적 특성과는 무관한 것을 알 수 있다.

2. 조동사의 양태적 맥락화

다음 예문을 보자

- (26) a. ¡Trae un libro que hable de unicornios!
 bring, imp a book that talks, subj about unicorns.

- b. *Traigo un libro que hable de unicornios.
 I. bring a book that talks. subj about unicorns.

Fábregas(2014, 8)

Bosque(1999)의 기준에서 보면 동사 *traer*는 양태와 무관한 동사이므로 (26b)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지만 명령이라는 양태적 맥락을 갖는 (26a)는 적절한 문장으로 판단된다. (26a)가 접속법으로 표현되는 양태성이 획득되는 이유는 동사의 어휘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명령법이라는 양태적 환경이 통사적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26a)에서는 의미적으로는 유니콘에 대해 언급하는 책의 존재에 대한 전제(presupposition)가 없지만 (26b)는 그러한 존재를 전제하므로 (26b)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라는 것을 Fábregas(2014)도 지적하고 있다. 즉 명령법이라는 양태적 맥락은 *siquiera*가 앞에서 살펴본 아래의 (6)의 예문에서 SCFP로 기능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6) a. Deme **siquiera** un vaso de agua, médico de mierda.
 b. Hala, mujer, toma un café con leche **siquiera**.

(6)과 (26a)와 같이 통사적으로 양태적 맥락을 구현하는 것과 더불어 조동사의 출현도 양태적 맥락을 구현하는 흥미로운 현상들이 관찰된다. Bosque(1999)는 조동사 *poder*를 양태 유발자로 규정하고 앞에서 살펴본 (22)와 같은 예문을 제시한 바 있다.

- (22) a. Me pudiste llamar **siquiera** una vez.
 b. *Me llamaste **siquiera** una vez.

그런데 Alonso-Ovalle(2016)의 경우 *siquiera*가 출현하는 문장에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poder*가 사용되면 다소 맥락에 어긋나는(deviant) 용법이라고 보고 의무성을 갖는 우설법 동사구인 *tener que*가 맥락에 보다 적합하다고 보았다.

(27) Para el pasaporte, Pedro {tiene que /#puede} enviarme siquiera una foto [escaneada]f.

‘For his passport, Pedro { has to /# can } send me at least a scanned photo.’

Alonso-Ovalle(2016, 193)

그렇다면 (27)의 poder는 왜 Bosque(1999)의 판단과 달리 siquiera와 함께 적절한 문맥을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조동사 poder의 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Fábregas(2014)의 설명을 통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Fábregas(2014)는 Palmer(1986)의 제안처럼 양태 조동사는 (28)과 같이 인식양태(epistemic modal), 당위양태(deontic modal), 동적양태(dynamic modal) 세 부류로 나뉠 수 있으며 조동사 poder는 (28)의 세 양태를 모두 나타낼 수 있지만 가능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존재양화(existential quantification)의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 한편 tener que 역시 (28)의 세 가지 양태를 모두 나타낼 수 있지만 필요성을 나타내는 경우 항상 전칭양화의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

(28) a. epistemic modals, which express the attitude of the speaker towards the truth of the predicate.

b. deontic modals, which express a relation between the eventuality, the subject and a set of rules, norms and regulations.

c. dynamic modals, which express a relation between the eventuality, the subject and the set of internal properties, capacities and dispositions of the subject.

(29) a. Puede llover.

Roughly: the speaker considers it possible that it will rain.

b. Juan puede quedarse en casa.

Roughly: given a set of rules, Juan is allowed to stay home.

c. Juan puede hablar inglés.

Roughly: given his knowledge, Juan is able to speak English

(30) a. Tiene que llover.

Roughly: the speaker considers that, necessarily, it will rain.

b. Juan tiene que quedarse en casa.

MPI이며 (31)의 경우 전칭양화사인 todos가 등장하는 환경이므로 이 전칭양화사가 siquiera를 인허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고, NPI가 부정일치(Negative Concord)를 하는 것처럼, 일종의 양태일치(Modal Concord)를 통해 인허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어휘적으로 양태성을 갖는 동사는 (31)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의문문과 같이 통사적으로 양태성을 갖는 조건 역시 없지만, 전칭양화사가 양태성을 유발하는 운용자로 작용하므로 이 전칭양화사가 양태운용자로서 siquiera를 인허하는 것이다.

3. siquiera의 형태론적 정보와 관련된 양보성과 양화성

주지의 사실은 siquiera가 갖는 의미적 특성 중 하나는 al menos의 성격을 가지며 마치 기수사를 수식하는 양화사처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Seco(1998)는 다음의 (32)의 siquiera는 por lo menos의 의미를 가지며 양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기술한다. Cerrolaza Gili(2005, 280)도 (33a), (33b)는 모두 siquiera가 최저 등급의 양(una cantidad como la mas baja que logicamente se puede pensar)에 해당한다고 기술한다. 이와는 다소 차별되게 웹 사전인 Diccionario de Salamanca⁷⁾는 (34)와 같이 양과 관련된 내용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사건의 언급에서 최소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다.

(32) Dame siquiera dos pesetas.

(33) a. Estés agotado. ¿Por que no adelantas las vacaciones? Siquiera un par de días.

b. Déjame algo de dinero, siquiera un par de euros para el autobús.

(34) (preferentemente para expresar un deseo o una pregunta) Se usa para establecer un mínimo referido a una cantidad o a un hecho: *Me gustaría tener siquiera dos. Come siquiera la fruta, hijo. ¿Le diste las gracias, siquiera?*
 Sinónimo: por lo menos, al menos.

7) <http://fenix.cnice.mec.es/diccionario/>

b. ?*Siquiera una vez pudiste intentarlo.

Bosque는 (36b)의 비문법성이 *siquiera*가 FCI로 기능할 수 없는 증거라고 추정하지만 본 연구는 (36b)의 비문법성은 *siquiera*가 Kadmon and Landman(1993)이 언급한 바처럼 FCI로 기능할 수 있으며 다만 다른 FCI들과 다른 점은 *comoquiera*, *dondequiera*/ *adondequiera*, *por doquier*, *quien(es)quiera* y *cual(es)quiera* 등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들이지만 *siquiera*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가 아니라 이접의 성격이 있는 접속사구의 성격을 어원적으로 갖기 때문에(cf. II장 1.의 Palomo 1936의 언급 참조)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FCI는 관계사로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문두에 출현하는 접속사의 성격도 갖지만 (36b)와 같은 *siquiera*는 접속사의 성격이 없는 MPI로 기능하므로¹⁰⁾ 당연히 양태성을 이끄는 조동사에 성분통어[c(onstituent)-command]되는 위치에 출현해야 인허가 가능하므로 (36b)는 불가능한 문장이며 (36a)가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다음 예문을 보자.

- (4) a. Si el fútbol atendiera siquiera un poco a la lógica, el Barcelona arrollaría al Getafe.
- b. Gabriel había cruzado la calle {antes/*(después) de} siquiera pensar en lo que estaba haciendo.
- c. El clima del viernes era {demasiado/*bastante} malo para siquiera intentar un lanzamiento.
- d. ¿Has leído siquiera el título del post?

Bosque(1999)에 의거하여 보면 (4a)와 (4d)는 양태적 맥락을 구현하므로 실제로 *siquiera*는 양보성과 더불어 양화성의 해석이 모호할지라도 양화성을 갖

10) 오늘날 스페인어에서 *siquiera*가 문두에 나타나는 경우 양보의 접속사로 기능하며 자신에 후행하는 동사가 접속법 형태를 갖기를 요구한다. 앞 II장에서 RAE(2014)가 제시하는 예문 ‘*¡Hazme este favor, siquiera sea el último.*’가 이에 해당한다.

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4b)와 (4c)는 특이하게도 *al menos*의 해석 즉, 양화적 해석을 갖는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특성은 *siquiera*가 갖는 형태-통사론적 정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고자 한다. 즉 *siquiera*는 주지하다시피 형태적으로 조건(*conditional*)의 접속사 *si*와 동사 *querer*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형의 합성어이므로 Haspelmath and König(1998, 563)가 언급한 것처럼 전칭양화성과 함께 조건 양보성(*concessive conditionality*)이 자질적으로 명세화 되어있다. *siquiera*는 부사로 기능하므로 통사적으로 불변화사(cf. Pavón Lucero 1999, 567)이지만 형태적으로는 동사의 접속법형태가 굴절된 형태인 ‘-quiera’가 명세화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실은 (4a)와 (4d)와 달리 (4b)와 (4c)는 전치사구 내부에 출현하는 동사의 형태론적 굴절 정보(*morphological inflection information*)가 없는 부정사로 출현하며 이 부정사와 함께 *siquiera*가 출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보성, 즉 MPI로 *even*의 의미는 갖지만 양화성을 갖는 *al menos*의 의미를 가지려면 자신을 인허하는 환경이 양태적 맥락에서 정형동사(*finite verb*)의 굴절정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을 보자.

(37) a. Juan trabaja demasiado.

b. The ModP option: [CP [ModP demasiado [M' [M [IP Juan trabaja *e_i*]]]]]

Bosque(2002, 269)

Bosque(2002)는 부사 *demasiado*가 과도함의 의미를 갖는 양태의 부사로 보고 (37a)의 LF상에서의 인허과정을 (37b)로 보았다. 그는 ModP가 CP에 의해 선택되는 범주로 보는 견해로 종속절에 접속법의 출현환경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종속절에 접속법이 출현하는 환경이란 양태적 맥락을 이루는 환경이므로 MPI를 인허하는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4b)와 (4c)가 (37b)와 같은 환경에서 도출된다면 핵 Mod는 종속절 내부에 *siquiera*와 관련된 동사의 굴절이 없으므로 의미적으로는 *siquiera*의 양보성을 인허할 수 있겠지만 부정

사의 특성인 동사 굴절정보의 부재로 ‘-quiera’를 점검할 수 있는 동사의 시제 관련 굴절자질은 없다. 스페인어에서 최상급의 양화사로 기능하는 *al menos* 는 양태적 맥락과 무관하게 기수 양화사를 수식하는 초점의 부사로도 기능하며 문장부사로도 기능한다. 그러나 *siquiera*는 양태적 맥락 하에서만 양보성을 가지며 동사가 굴절되어 나타나는 환경에서만 양화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37b)의 기제를 통해서 볼 때 (4b)와 (4c)는 의미적으로는 양태적 맥락을 구성하지만 부정사가 갖는 특성인 동사의 형태론적 굴절 정보의 부재로 인해 *siquiera*가 양화적 해석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¹¹⁾

끝으로 이러한 FCI와 관련된 맥락에서 Bosque(2010)의 (38)의 제안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38)	OPERATOR	VARIABLE
a.	Negative triggers and affective predicates	Negative polarity items
b.	Negation, interrogation, some modals	Subjunctive mood
c.	Modal operators, intensional predicates	Free-choice items
Bosque(2010, 17)		

(38c)의 특성은 이미 Bosque(1999)가 *siquiera*가 출현하는 환경에서 양태성 유발자로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며 그는 이 맥락에서 FCI가 구현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Bosque는 (38c)에 속하는 범주로 양태적 맥락에서 부정(*indefinite*)

11) (4b)와 (4c)는 전치사구로 이루어진 부가어(*adjunct*)이므로 이 전치사구 자체가 국면(*phase*)를 이루어 *siquiera*는 주절의 굴절정보와 통사적 관련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18a)의 예문 ‘*Todos los estudiantes que hablaron siquiera una vez llevaban pantalones vaqueros*’에서 *siquiera*는 종속절 내부의 동사와 더불어 상위의 주절에 등장하는 전칭 양화사와 통사적 점검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국면의 특성은 Chomsky(2001, 13-14)의 국면 불가침 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PIC)과 관련이 있다.

(i)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PIC)

The domain of H is not accessible to operations at ZP; only H and its edge are accessible to such operations. [ZP Z ... [HP α [H' H YP]]] (with ZP the smallest strong phase)

의 성격을 가지면서 포함의 성격을 갖는 이접의 접속사가 가능함을 주장하며 영어 문장 ‘Would you like coffe or tea?’에서 출현하는 포함의 의미를 동반한 이접의 접속사(inclusive disjunction)(cf. Hurford 1974)인 ‘or’의 용법을 그 예로 든다.¹²⁾

본 연구의 주제인 *siquiera*는 MPI로 기능하며 의미적으로 FCI의 조건을 충족한다. 즉 (32)는 2페세타를 요구하는 명령법의 양태적 맥락이며 기수사에 선행하여 나타나므로 기수사의 의미와 함께 양과 관련한 최소의 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34)의 ‘Come *siquiera* la fruta, hijo’와 같은 문장은 기수 양화사가 없어도 명령법이라는 양태적 맥락하에서 *al menos*의 의미를 유추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32)와 (34)의 문장의 의미는, 다른 여러 가능한 대안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 2페세타를 주는 행위나 과일을 먹는 행위가 여러 가능한 대안들 중 최저 등급의 대안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적 특성은 결국 기수성 양화사가 문장에 등장하는 것과는 무관함을 나타내며, *siquiera*가 갖는 양보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척도성을 가짐으로 인해 얻어지는 양화적 해석임을 알 수 있다.

IV. 맺는말

스페인어의 *siquiera*는 어원적으로 조건의 접속사 *si*와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형인 *quiera*의 합성어에서 비롯되어 현대 스페인어에서 접속사와 부사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이 두 특성에 기초하여 비부정적 맥락에서 부사로 사용되는 *siquiera*의 용법을 고찰하고 그 의미적 특성이 어원적으로 양보성에 기인함을

12)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설명이 접속사로 기능하는 *siquiera*에도 정확히 적용된다고 본다.
 (i) *Siquiera venga, siquiera no venga.*
 (i)은 앞 장에서 제시한 예문으로 RAE(2014)는 분배접속사로 기술하지만 이접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접속사는 MPI와 다르므로 Bosque(1999)가 주장하는 성분 통어와는 무관하다. 본 연구는 서두에서 밝혔듯이 접속사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추가로 다루지 않겠다.

살펴보았다. 현대 스페인어에서 품사적으로 부사의 지위를 갖는 *siquiera*는 형태적으로 동사 *querer*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의 동사굴절 정보인 ‘-quiera’를 가짐과 동시에 조건의 접속사인 *si*의 특성과 함께 전칭적 조건 양보성을 가지므로, *siquiera*는 전칭양화성을 가지는 척도양보 초점사로 기능하면서 양태적 맥락 유발자에 의해 인허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Alonso-Ovalle, L.(2009), “Even and Biased Questions: The Case of Spanish *Siquiera*”, <http://journals.linguisticsociety.org/proceedings/index.php/SALT/article/view/2540/2288>.
- _____ (2016), “Are all concessive scalar particles the same? Probing into Spanish *siquiera*”, *Proceedings of SALT 26*, pp. 185-204.
- Bartol Hernández, J.A.(1986), *Oraciones consecutivas y concesivas en Las Siete Partidas*, Salamanca, Acta Salmanticensia.
- Bosque, I.(1999), “Sobre la gramática de los contextos modales. Entornos modales y expresiones inespecíficas en español”, *Actas del XI Congreso de Alfal*, Las Palmas de Gran Canaria, pp. 43-57.
- _____ (2002), “Degree Quantification and Modal Operators in Spanish”, in J. Gutiérrez-Rexach(ed.), *From Words to Discourse*, Amsterdam, North-Holland, pp. 263-288.
- _____ (2010), “On disjunctive dependencies”, *Catalan Journal of Linguistics*, Vol. 9, pp. 7-21.
- Büring, D.(2008), “The least at least can do”, in Charles B. Chang and Hannah J. Hayne(eds.),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WCCFL) 26*, Somerville, MA: Cascadilla Press, pp. 114-120.
- Cerrolaza Gili, O.(2005), *Diccionario práctico de gramática: 800 fichas de uso correcto del español*, Edelsa.
- Charnavel I.(2015), “How French sheds new light on Scalar Particles”, *Linguistic Symposium on Romance Languages. Forthcoming; 44*, <https://dash.harvard.edu/handle/1/25582889>
- Chierchia, G.(1995), “Individual-level predicates as inherent generics”, in G.

- Inquiry*, Vol. 2, No. 4, pp. 479-514.
- Kadmon, N. and F. Landman(1993), “Any”, *Linguistics and Philosophy*, Vol. 16, No. 4, pp. 353-422.
- Karttunen, L, and S. Peters(1979), “Conventional Implicature”, in C.-K. Oh, and D. A. Dinneen(eds.), *Syntax and Semantics*, vol. 11, Academic Press, pp. 1-56.
- Kennedy, C.(2015), “A ‘de-fregean’ semantics(and neo-gricean pragmatics) for modified and unmodified numerals”, *Semantics and Pragmatics*, Vol. 8, No. 10, pp. 1-44.
- Krifka *et al.*(1995), “Genericity. An introduction”, in G.N. Carlson and F.J.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124.
- Ladusaw, W.(1979), “Polarity Sensitivity as Inherent Scope Rela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Published by Garland Press, New York.
- Lahiri, U.(1998), “Focus and Negative Polarity in Hindi”, *Natural Language Semantics*, Vol. 6, pp. 57-123.
- Nakanishi, K.(2006), “Even, Only, and Negative Polarity in Japanese”, *Proceedings of SALT 16*, pp. 138-155.
- Nakanishi, K. and H. Rullmann(2009), “More about at least”, *Handout of a talk presented at The Meeting of Semanticists Active in Canada, May 26*, <http://sites.google.com/site/kimikonakanishi/research>.
- Palmer, F.R.(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omo, H.R.(1936), “Si quiere y sus variantes”, *Hispanic Review*, Vol. 4, No. 1, pp. 66-68.
- Pavón Lucero, M.V.(1999), “Clases de partículas: preposición, conjunción y adverbio”, in I. Bosque and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pp. 565-655.
- Penka, D.(2015), “At most at last”, in E. Csipak and H. Zeijlstra(eds.), *Sinn und Bedeutung 19*, pp. 463-480.
- Progovac, L.(1994), *Negative and positive pol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ncessiveness and Minimal Value of Siquiera in Modal Contexts

Jae-Yong Kwa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wak, Jae-Yong(2017), "Concessiveness and Minimal Value of Siquiera in Modal Contexts",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8(1), 1-29.

Abstract It is traditionally described that the Spanish adverb *siquiera* is a compound word derived from two independent elements *si* and *quiera*: the former *si* is a conditional conjunction and the later *quiera* is a third person singular present subjunctive form of the verb *querer*(cf. RAE 2014). The adverb *siquiera* has been extensively discussed in the literature on negative polarity, but there is no sufficient analysis of the use in non-negative contexts without the particle *ni*. We will show that the focus adverb *siquiera* is licensed as a modal polarity item in non-negative modal contexts and denotes a minimal value with respect to the universal quantification because this element has etymologically a universal concessiveness(cf. Haspelmath and König 1998) and bears a morphologic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modality(cf. Bosque 1999; 2002; Fábregas 2014).

Key words focus adverb, modal polarity item, universal quantification, concessiveness